

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학술지 발행기관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무료 DB : KCI

영유아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을 중심으로*

홍 시 라 이 유 영[†]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APIMeM을 사용하여 부모의 자녀 가치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220쌍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녀 가치와 공동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본인과 어머니 자녀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기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 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본인에게 정적효과를, 어머니에게는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자기와 상대방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양육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각자의 공동양육 모두 자기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 효과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녀 가치, 결혼 만족도, 부모 공동양육, APIMeM

* 본 연구는 홍시라(2025)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이유영, 충신대학교일반대학원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06988)

Tel : 02-3479-0460, Email : yylee@cs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과거에는 결혼을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인생의 필수과정으로 생각하고 보편적인 규범적 제도로 인식하며 개인의 삶에서 당연한 관문으로 여겼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김석호, 2022; 오영은, 주추희,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상, 결혼 과정에서 부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결혼 만족도’는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안녕에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즉, 결혼 만족도는 단순히 부모 개인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부부의 질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단위의 조화와 자녀 양육 환경,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요인이다(김현정, 박혜진, 2023; 임수진, 2013).

결혼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정서적 안녕을 촉진하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직업적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철수, 2020; 이영희, 2022).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부모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이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대인관계의 원만함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기능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권신영, 서영숙, 2014; 김효진 외, 2020). 더불어, 결혼 만족도는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건강한 가족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선영, 이은정, 2023; Smith & Johnson, 2023). 결혼 만족도는 결혼의 지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높은 결혼 만족도는 이혼 고려 가능성을 낮추고, 부모간 갈등을 예방하며, 가족의 기능적 안정성을 강화한다(Karney & Bradbury, 2023; Rosenfeld & Roesler, 2023). 반대로 결혼 만족도

가 낮은 경우, 부모 간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김민녀, 2018). 이혼은 개인의 심리적·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 사회적 지지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이다(김경근, 2010; 신민정, 임춘희, 2023).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탐구는 학문적 및 실천적 관점에서 꾸준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는 출산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는 물론, 부모 관계와 결혼 만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권용은, 김의철, 2004; 김연진, 김수정, 2015; 서주현, 2020; 연은모, 최효식, 2015; 이삼식, 2005).

자녀 가치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지위, 경제적 기대 등 복합적인 측면을 포함한 인식을 의미한다(이삼식 외, 2005). 먼저,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자녀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주는 심리적 만족을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강화에 기여한다(윤명자, 2023). 자녀의 경제적 가치란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고, 사회적 가치는 부모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지위 강화·가문의 대를 잇는 역할과 노년기의 실질적 부양까지 실용적 관점도 포함한다. 이처럼 자녀 가치는 단일한 의미가 아닌,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기대,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결합된 다면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마미정, 2007; 윤미라, 2006).

한편,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 충족감을 제

공하는 동시에, 양육 과정에서는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 경험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자녀 가치는 부모에게 있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이중적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이삼식, 2005; 진민주,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러한 태도는 부모 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최승미, 권정혜, 2012; 김수아, 2021). 반면, 자녀를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적 희생으로 인식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부모 갈등을 유발하여 결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Nomaguchi & Milkie, 2003). 선행연구들은 높은 자녀 가치가 양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낮은 스트레스 수준, 부부 간 친밀한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결과로 연결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결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강수경, 정미라, 2013; 연은모, 최효식, 2015; 기쁘다, 2017). 또한, 자녀 가치가 출산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Ma Mi-Jong, 2008)도 있으며, 자녀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은 본인의 결혼 만족도뿐 아니라 배우자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부모 관계가 상호작용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연은모, 최효식, 2015; 윤명자, 2023).

또한, 자녀 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동기와 출산율의 주요 변인이 반영된다고 하였으며(권용은, 김의철, 2004),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자녀로 인한 기쁨과 정서적 만족, 가계 계승, 경제적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양육의 태도와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양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박지영, 이현주, 2018; 윤명자 외, 2023). 반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태도의 부조화는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양육의 과정에서 마찰을 유발하고, 부모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지금의 사회는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부부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가치를 보다 중시하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으며 부모 공동양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양육 부담을 양측으로 분산시키고 부모 간의 상호작용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박선주, 강민주, 2017; Dubowitz et al., 2001; Puglisi et al., 2024).

공동양육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서로 지원하고 자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부모 간에 합의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양육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선영, 이희선, 2022). 특히 양예진과 도현심(2022)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생각과 역할 방식, 행동에 있어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통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협력적 과정을 공동양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현대 사회변화에 발맞춰 공동양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 역할 분담을 넘어 심리적·정서적 협력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공동양육이 단순히 실질적 협조를 넘어서서, 부모 간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서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양육 태도는 부모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Hale et al., 2004; 김혜진, 2015; 이미현, 2015). 반면, 공동양육의 과정에서 역할 분담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부모 간 긴장을 초래하여 결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Belsky & Kelly, 1994; Kouros et al., 2014). 또한 공동양육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이 일관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과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조윤진, 2017). 이처럼 공동양육은 가족 내의 정서적 안정성과 신뢰 구축을 돕고, 양육 환경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부모 관계의 만족도 및 심리적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긴만큼 이 시기의 부모 공동양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 시기의 공동양육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부모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김혜진, 2015; 박선진, 강민주, 2020; 박익새, 2012; 임선희, 이부미, 2020; 전선영, 이희선, 2020). 즉, 유아기 공동양육 개념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서서 협력, 정서적 유대, 상호 인정이라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양예진, 도현심, 2022).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

기 위해,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가치와 공동양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 만족도는 부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extended to Mediation)을 사용하여 자녀 가치, 부모 공동양육, 결혼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본인은 물론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고자 한다.

APIMeM은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로 주목받고 있다(Cook & Kenny, 2005). 짝자료 분석을 통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자기 효과(actor effect)는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이 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반면,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는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이 상대방의 심리 상태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소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역동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부모처럼 밀접한 커플 관계에서는 자신의 특성이 단순히 자신의 결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쉽다(Feeney, 2003).

기존 연구들(이성미, 이영호, 2021; 고수연, 박정윤, 2024; 홍지희, 김보영, 2021)은 이러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APIMeM을 통해 분석하며, 애착,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인들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결혼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기 또는 중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결혼 만족도는 U자의 형태로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결혼 초기에는 부부간의 감정적 친밀감과 기대로 인해 결혼 만족도가 높지만, 출산과 양육과 같은 주요 생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결혼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Bahr, Chappell, Leigh, 1983). 실제로 부모 공동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높다고 보고한다(양예진, 도현심, 2019) 즉, 결혼 초기에 영유아를 기르며 겪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 간 역할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경험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 만족도를 탐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가치와 공동양육 경험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및 상대방 효과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가치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 공동양육이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으나, 부모의 신념이 관계적 결과로 발현되는 핵심적인 ‘과정(process)’이자 ‘행동적 기제’라는 이론적 관점(Feinberg, 2003)에서 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수의 실증연구(김수아, 2021; 윤명자, 2023)가 보고하듯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내적 가치관이 ‘협력적 양육’이라는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근거한다. 또한 APIMeM 적용하여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동양육이라는 매개 변인이 부모 간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역동성을 보다 깊이 탐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양육의 중심이 되는 부모가 각자의 요인인 자녀 가치를 확인하고 상호 관계적 요인인 부모 공동양육을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서로의 참여에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지해줄 수 있는 동반자적 상담적 개입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설계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녀 가치, 부모 공동양육, 결혼 만족도 간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부모의 자녀 가치가 부모 공동양육을 매개하여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서울 및 인근 수도권(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모집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과 진행 과정,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쪽만 응답한 자료와 응

답이 불성실한 데이터는 선별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과 과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220쌍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아버지		어머니		전체
연령대	26~30세	1 (0.5)	4 (1.8)	5 (1.1)	
	31~35세	30 (13.6)	70 (31.8)	100 (22.7)	
	36~40세	110 (50.0)	91 (41.4)	201 (45.7)	
	41세 이상	79 (35.9)	55 (25.0)	134 (3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29 (13.2)	21 (9.5)	50 (11.4)	
	전문대 졸업	44 (20.0)	64 (29.1)	108 (24.5)	
	대학교 졸업	109 (49.5)	107 (48.6)	216 (49.1)	
	대학원 졸업 이상	38 (17.3)	28 (12.7)	66 (15.0)	
거주지역	서울	29 (13.2)	29 (13.2)	58 (13.2)	
	경기	146 (66.4)	146 (66.4)	292 (66.4)	
	인천	38 (17.3)	38 (17.3)	76 (17.3)	
	기타	7 (3.2)	7 (3.2)	14 (3.2)	
결혼기간	3년 미만	11 (5.0)	11 (5.0)	22 (5.0)	
	3~5년	22 (10.0)	22 (10.0)	44 (10.0)	
	5~7년	71 (32.3)	71 (32.3)	142 (32.3)	
	7년 이상	116 (52.7)	116 (52.7)	232 (52.7)	
자녀 주된 돌봄이	어머니	194 (88.2)	194 (88.2)	388 (88.2)	
	아버지	10 (4.5)	10 (4.5)	20 (4.5)	
	조부모	16 (7.3)	16 (7.3)	32 (7.3)	
	기타				
자녀수	1명	92 (41.8)	92 (41.8)	184 (41.8)	
	2명	108 (49.1)	108 (49.1)	216 (49.1)	
	3명 이상	20 (9.1)	20 (9.1)	40 (9.1)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계속)

구분	빈도 (백분율)						
	아버지	어머니	전체				
자녀연령	0~12개월	22	(7.5)	22	(7.5)		
	13~24개월	17	(5.8)	17	(5.8)		
	25~36개월	42	(14.3)	42	(14.3)		
	37~48개월	39	(13.3)	39	(13.3)		
	49~60개월	70	(23.9)	70	(23.9)		
	61~72개월	61	(20.8)	61	(20.8)		
	73개월 이상	42	(14.3)	42	(14.3)		
취업여부	취업	207	(94.1)	102	(46.4)	309	(70.2)
	휴직 중	6	(2.7)	32	(14.5)	38	(8.6)
	구직 중	6	(2.7)	8	(3.6)	14	(3.2)
	미취업	1	(0.5)	78	(35.5)	79	(18.0)
맞벌이 여부	예	125(56.8)		125	(56.8)		
	아니오	95(43.2)		95	(43.2)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6	(7.3)	16	(7.3)		
	300~400만원	68	(30.9)	68	(30.9)		
	400~500만원	64	(29.1)	64	(29.1)		
	500~600만원	49	(22.3)	49	(22.3)		
	600만원 이상	23	(10.5)	23	(10.5)		

측정 도구

부모의 자녀 가치 척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 및 결혼 동향조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 가치의 두 가지 측면인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평가하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가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감정적 만족도를 측정하며, 예

를 들어 ‘부모가 되는 것은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자녀가 있으면 외로움을 덜 느낀다’와 같은 4개 문항이 포함된다. ‘도구적 가치’는 자녀가 경제적·실용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4점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아버지의 경우 정서적 가치 .64, 도구적 가치 .77, 전체 신뢰도 .75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정서적 가치 .70, 도구적 가치 .79, 전체 신뢰도 .76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만족도 척도

결혼 만족도를 평가는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 만족도 검사(MSI)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한 한국판 결혼 만족도 척도(K-MSI)를 활용하였다. K-MSI는 총 1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 기대를 측정하는 22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질까 걱정할 적이 있다’ 또는 ‘나는 우리 결혼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다. 응답 방식은 기존 ‘예/아니오’ 형식에서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94, 어머니 .95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공동양육 척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간의 공동양육은 양예진, 도현심(2022)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지지, 침해, 갈등, 소통)의 하위 영역으로 총 24개 문항들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지지는 ‘배우자와 나는 부모로서 좋은 한팀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7개, 침해는 ‘나는 부모로서 배우자

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된다. 갈등은 ‘나는 배우자에게 아이가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화를 낸다’ 등 5문항, 소통은 ‘내가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배우자는 잘 들어준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침해와 갈등 영역은 역채점점으로 처리한다. 부모 공동양육의 Cronbach's α 는 .9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경우(지지 .87, 침해 .84, 갈등 .91, 소통 .92로, 전체 .93), 어머니는(지지 .93, 침해 .87, 갈등 .91, 소통 .90)으로 전체 .95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SPSS 26.0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부모의 자녀 가치, 부모 공동양육, 결혼 만족도)의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일 경우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또한,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t Mediation Model; APIMeM)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Ledermann et al., 2011). APIMeM은 개인 내 자기 효과와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부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연구 대상이 부모로 이루어진 쌍 자료(distinguishable dyadic data)로 구성된 점을 반영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

용하였으며,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하였고, 측정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0.5 이하인 요인 적재량 문항은 제거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포함된 경우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의 효율성과 간결성을 높였다.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Mplus를 통해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간접 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TLI=.931, CFI=.949, SRMR=.046,

RMSEA=.077로 나타났으며, 특히 RMSEA의 90% 신뢰구간이 넓지 않게 형성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적합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어머니의 자녀 가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 .23, p < .01$), 부모 공동양육 및 결혼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r = .19, p < .01$),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r = .14, p < .05$),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r = .20,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 공동양육의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r = .50, p < .01$),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r = .71, p < .01$),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r = .50,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r = .46, p < .01$)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r = .74,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는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r = .59, p < .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 df	p	CFI	TLI	RMSEA (95% 신뢰구간)	SRMR
205.663 / 89 (2.311)	.000	.949	.931	.077 (.063~.091)	.046

표 3.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차원	(부) 자녀 가치	(모) 자녀 가치	(부)부모 공동양육	(모)부모 공동양육	(부)결혼 만족도	(모)결혼 만족도
(부) 자녀 가치						
(모) 자녀 가치	.23**					
(부) 부모 공동양육	.07	.10				
(모) 부모 공동양육	-.04	.19**	.50**			
(부) 결혼 만족도	.17	.14*	.71**	.46**		
(모) 결혼 만족도	-.07	.20**	.50**	.74**	.59**	
평균(Mean)	3.77	3.39	3.52	3.36	4.19	4.00
표준편차(SD)	.57	.60	.39	.46	.63	.73
왜도(Skewness)	-.28	.05	-.94	-.69	-1.08	-1.19
첨도(Kurtosis)	-.22	-.33	1.13	-.09	-1.62	1.29

주. n=220, * $p < .05$, ** $p < .01$, *** $p < .001$

구조모형의 직접(자기-상대방) 효과

구조모형의 주요 변인 간 직접 경로 효과는 비표준화 계수(B)와 표준화 계수(β)로 각각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가치와 부모 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어머니) 부모 공동양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자신의 부모 공동양육($\beta = .293, p < .001$)과, 상대방(아버지) 부모 공동양육($\beta = .172, p < .05$)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114, p < .05$), 상대방(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26, p < .05$).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아버지)의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부모 공동양육은 자신의 결혼 만족도($\beta = .779, p < .001$)와 배우자(어머니)의 결혼 만족도($\beta = .27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도 자신의 결혼 만족도($\beta = .756, p < .001$)와 상대방(아버지)의 결혼 만족도($\beta = .175,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시라 · 이유영 / 영유아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PiMeM)을 중심으로

표 4. 구조모형의 직접(자기-상대방)효과

	경로	B	β	SE	t	p
(부)자녀 가치	→ (부)부모 공동양육	.089	.115	.080	1.443	.149
	→ (모)부모 공동양육	-.049	-.042	.077	-.548	.583
(모)자녀 가치	→ (모)부모 공동양육	.315	.293	.074	3.976***	.000
	→ (부)부모 공동양육	.123	.172	.077	2.217*	.027
(부)자녀 가치	→ (부)결혼 만족도	.114	.114	.057	2.017*	.044
	→ (모)결혼 만족도	-.154	-.126	.053	-2.356*	.018
(모)자녀 가치	→ (모)결혼 만족도	.083	.073	.058	1.255	.209
	→ (부)결혼 만족도	-.012	-.013	.059	-.218	.828
(부)부모 공동양육	→ (부)결혼 만족도	.999	.779	.045	17.181***	.000
	→ (모)결혼 만족도	.428	.272	.063	4.279***	.000
(모)부모 공동양육	→ (모)결혼 만족도	.793	.756	.047	16.126***	.000
	→ (부)결혼 만족도	.149	.175	.065	2.701**	.0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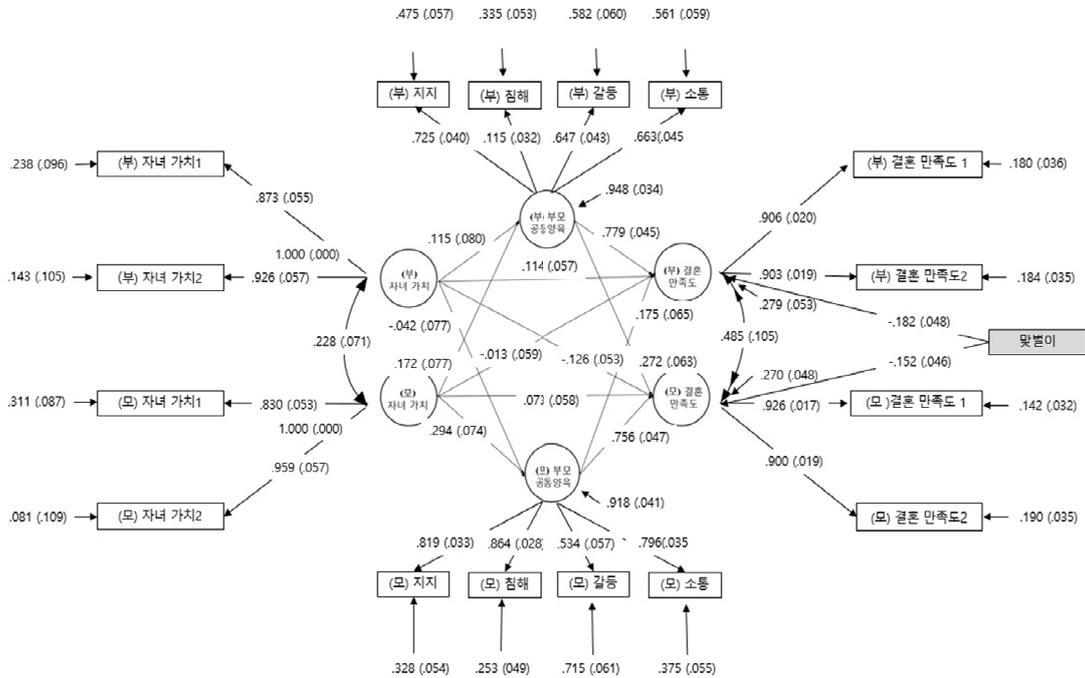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의 직접(자기-상대방) 효과(표준화계수)

구조모형의 매개 효과

부모의 자녀 가치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매개 효과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이론적 기준을 바탕으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서 간접 효과가 유의하면 완전 매개 효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하면 부분 매개 효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lus 8.8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Shrout & Bolger, 2002)을 적용하였으며,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간접 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총 8개의 경로 중 4개 경로에서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 가치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아버지의 부모 공동양육이 매개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본인의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매개 경로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대방인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 가치가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이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자녀 가치가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을 매개로 본인의 결혼 만족도($B = .221, p < .0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표 5. 구조모형의 매개 효과

경로	B	β	p	Bootstrapping	
				95% IC	
				lower	upper
(부) 자녀 가치 → (부) 부모 공동양육 → (부) 결혼 만족도	.089	.090	.149	-.032	.211
→ (모) 결혼 만족도	.038	.031	.178	-.014	.077
(부) 자녀 가치 → (모) 부모 공동양육 → (부) 결혼 만족도	-.007	-.007	.593	-.034	.020
→ (모) 결혼 만족도	-.039	-.032	.583	-.146	.082
(모) 자녀 가치 → (모) 부모 공동양육 → (모) 결혼 만족도	.250	.221***	.000	.109	.334
→ (부) 결혼 만족도	.047	.051*	.027	.006	.097
(모) 자녀 가치 → (부) 부모 공동양육 → (모) 결혼 만족도	.053	.047*	.048	.001	.093
→ (부) 결혼 만족도	.123	.134*	.029	.014	.254

* $p < .05$, ** $p < .01$, *** $p < .001$

경로는 완전 매개 효과로 해석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가치가 어머니의 부모 공동양육을 통해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B = .051, p < .05$)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에서도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아버지의 부모 공동양육을 통해 본인의 결혼 만족도($B = .047,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아버지의 부모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B = .134, p < .05$)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경로는 완전한 매개 효과로 해석되었다. 어머니의 자녀 가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공동양육을 촉진하여 부모 각각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서 매개 작용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가치가 부모 공동양육과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상대방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가치, 부모 공동양육,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자신의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공동양육에도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 가치가 자신의 양육 및 파트너의 양육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기존 연구(박지영, 이현주, 2018; 신건호, 2019; 안현주, 이경민, 2020; 윤명자, 2023; 윤명자, 제경숙, 김병만, 2023; McHale & Lindahl, 2011)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 영향의 부재는 사회적 기대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녀 양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이 여전히 어머니에게 집중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역할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공동양육의 실제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 가치가 부모 공동양육의 행동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변수가 잠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구조 개선에 있어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아버지의 공동양육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 가치가 더 나은 공동양육의 질을 이끌어낸다는 기존 연구(안현주, 이경민, 2020; McHale & Lindahl, 2011)를 뒷받침한다. 어머니는 보편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예: 자녀 돌봄, 자녀 문제 결정) 어머니가 자녀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배우자와 협력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자녀 가치는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 가치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김연진, 김수정, 2015; 연은모, 최효식, 2015; Fiorillo et al., 202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결과에 대하여 아버지가 자녀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 양육성공에 높은 기대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이 자녀 중심으로 넘어가 도리어 부부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의 높은 자녀 가치가 어머니(아내)의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기존 연구(윤명자, 2023)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아버지의 높은 자녀 가치는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높은 자녀 가치를 갖더라도 부부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아내(어머니)가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부관계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어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가치와 본인과 남편(아버지)의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본인과 남편(아버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 가치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김연진, 김수정, 2015; 연은모, 최효식, 2015)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양육 행동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한 강란혜(2000)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가치가 높다고 해서 결혼 만족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적 경로가 아닌, 중간에 간접적 작용

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특정 신념이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행동적 또는 중재적 조건 변수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어떠한 매개변수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각각의 부모 공동양육 수준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공동양육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높은 공동양육 수준은 양육 과정에서 함께 이해해주고 공유하는 존재가 되어 부모 간 갈등이 감소하고 가족 안에서의 친밀감이 높아져 결국 부모의 결혼 만족도도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강수경, 최혜정, 정미라, 2018; 김경철, 강보미, 2022; 김근혜, 김혜순, 2013; 윤기봉, 지연경, 2017; 윤명자, 2023; 이미현, 2015; 이윤미, 2014; 최선화, 김상립, 2020;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Feinberg et al., 2012; McHale et al., 2004)를 뒷받침한다.

한편, 어머니의 공동양육 수준 또한 본인의 결혼 만족도뿐 아니라 배우자인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 관련 생각이나 행동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지지하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성과 협력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높은 공동양육 수준은 아버지로 하여금 양육은 물론 부모가 서로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여 부모 모두의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결과로 이

어진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공동양육도 부모 간 상호작용과 가족 내 정서적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혜진, 2015; 윤명자, 제경숙, 김병만, 2023)를 뒷받침하며 부모 공동양육이 단순한 양육 책임의 분담을 넘어 부부관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즉,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U자형 곡선의 점점인 영유아 시기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서로의 공동양육은 자연스럽게 협력과 유대가 형성되고, 이는 긍정적 정서적 안정감으로 결혼 관계 전반에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부모 공동양육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구조적 동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적 성 역할이 뚜렷했던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현대 사회에서 공동양육은 가정 전체의 안정과 부부관계에 기여하는 자원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삶의 웰빙을 추구하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증가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는 공동양육이 힘든 경우조차 많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상황이자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양육의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보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부모 특성별 상황을 고려한 부모교육 강화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 부모를 위한 공동양육 교육 과정 개발과 가족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둘째, 상호의존 매개모형 APIMeM을 통해 부모 각각의 공동양육이 부모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 가치에서 결혼 만족도로 가는 경로에서 본인의 공동양육과 어머니(배우자)의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동양육을 통한 간접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모 공동양육이 부모 관계 질의 향상을 매개한다는 기존 연구들(김수아, 2021; 서주현, 2020; 윤명자, 2023)과는 다소 상이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며, 아버지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공동양육의 매개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한, 부모 공동양육과 같은 간접적 영향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자녀 가치가 높더라도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 부모의 결혼 만족에 미치는 내적 동기과 정서적 교류의 간접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 가치는 공동양육을 통해 자기 효과는 물론 상대방 효과까지 긍정적인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자녀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공동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공동양육은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 관계에서 어머니의 공동양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에 제약이 있으나, 어머니가 공동양육의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McHale et al., 2011)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자녀 가치가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일부 연구들(연은모, 최효식, 2015; Fiorillo et al., 2020; Nomaguchi & Milkie, 2003)과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특히 어머니의 공동양육이 자녀 가치와 결혼 만족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경로로 작용함을 밝혔으며, 부모 간의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상호작용이 결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동양육이 이루어지면 어머니의 자녀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가족 내에서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양육에서 당면한 과업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배우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게 된다. 따라 어머니의 자녀 가치에 영향을 받는 공동양육은 부모 결혼 만족도의 핵심적인 하나로 간접적 영향이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공동양육이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은 분명하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양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에서 만족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무제나 육아 휴직제도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과 복귀 후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는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맞벌이 부모가 공동양육에 관한 부담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복지 차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가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부모 간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존중과 협력적인 소통으로 공동양육에 대한 방법 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확대로 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높여 결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자녀 가치 척도는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이고 이중에서도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 가치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 가치 특성이나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충분히 반영하는데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소 낮은 신뢰도에 대한 원인은 서구 문화 기반으로 개발된 척도가 한국의 가족주의적 문화 특성이나 변화하는 아버지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한국 아버지들의 자녀 가치에 대한 고유한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타당성을 확보한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거나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서울·인천 지역의 보육 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부모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지방 거주 부모들과의 양육환경이

나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표본을 표집하여 본 연구모형을 반복검증하거나, 거주지별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변인을 측정 한 단면적 연구이므로, 부모 공동양육 역할의 변화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그 인과적 기제까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종단적 접근과 함께 질적·양적 방법을 통합하는 혼합연구(Mixed Methods)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두 변인의 변화 패턴을 양적으로 검증하고, 동시에 역할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주관적 경험과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APIM을 확장한 APIMeM 경로 매개 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부모의 자녀 가치와 공동양육,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쌍방향적으로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자녀 가치를 존중해주고 공동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부모들의 상황과 성향은 다양하며 부모 공동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사회적 지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양육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부모 스스로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에서 공동양육을 중심으로 한 개입 전략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이 영유아 부모의 결혼 만족도가 가정의 안정 및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모 공동양육과 결혼 만족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장란혜 (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강수경, 정미라 (2013). 임신기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자녀가치가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치의 매개적 역할. *한국영유아보육학*, 80, 85-107.
- 강수경, 최혜정, 정미라 (2018).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111-128.
- 고수연, 박정윤 (2024). 부부의 외현적 자기에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의존 매개효과; APIMeM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3), 299-319.
- 권신영, 서영숙 (2014). 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관계에서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01-115.
-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

- 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8(1), 123-139.
- 기쁘다 (2017). 결혼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관계에서 자녀 가치의 매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사)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자료집. 130-145.
- 김경근 (2010).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학회지*, 31(5), 1-15.
- 김경철, 강보미 (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연속다중매개효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5(2), 5-29.
- 김근혜, 김혜순 (201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51(3), 77-91.
- 김민녀 (2018). 부부갈등경험과 이혼결정과정 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법적이혼절차 중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석호 (2022).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조사연구*, 23(2), 1-33.
- 김선영, 이은정 (2023). 행복한 삶을 위한 결혼 만족도의 역할; 최근 연구의 통찰. *사회복지학*, 45(2), 101-118.
- 김수아 (2021).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5(3), 101-124.
- 김연진, 김수정 (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5(3), 123-145.
- 김철수 (2020). 결혼 만족도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 간의 관계; 가족 내 갈등 및 긍정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5(3), 123-145.
- 김현정, 박혜진 (2023). 「영유아 부모의 가족 가치관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추가 출산 의도 차이」. *한국아동학회지*, 44(1), 21-40.
- 김효진, 신현우, 홍세희 (2020).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40(3), 459-491.
- 김혜진 (2015). 공동양육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9(1), 137-156.
- 마미정 (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 기피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박선진, 강민주 (2020).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20(1), 1-25.
- 박익새 (2012).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이현주 (2018). 부모의 양육가치관이 공동양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3), 45-62.
- 서주현 (2020). 아버지의 자녀 가치가 아버지

- 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4), 1107-1125.
- 신건호 (2019).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문화성향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7(5), 369-377.
- 신민정, 임춘희 (2023).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인간생태학연구*, 61(4), 635-645.
- 안현주, 이경민 (2020). 부모의 자녀 가치 인식과 공동양육의 질 간의 관계; 양육 활동에서 접근성, 직접 참여, 책임감을 중심으로. *아동학연구*, 41(3), 215-230.
- 양예진, 도현심 (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40(3), 39-51.
- 양예진, 도현심 (2022). 유아기 자녀의 부모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43(1), 61-76.
- 연은모, 최효식 (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0, 79-108.
- 오영은, 추주희 (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 21, 11(1), 1217-1232.
- 윤기봉, 지연경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인간발달연구*, 24(3), 133-153.
- 윤명자 (2023). 유아기 부모의 자녀 가치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부모 공동양육 및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명자, 제경숙, 김병만 (2023). 유아기 부모의 자녀 가치가 부모 공동양육과 가족 상호작용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8(6), 467-492.
- 윤미라 (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265-285.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미, 이영호 (2021).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1), 55-81.
- 이영희 (2022). 결혼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감 분석. *사회복지연구*, 38(2), 55-72.
- 이윤미 (2014). 유아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희, 이부미 (2020). 부모 공동양육 삶의 이야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3), 353-380.
- 임수진 (2013). 원가족 경험이 결혼 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남녀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19(3), 145-166.

- 전선영, 이희선 (2020). 부모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효과.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20(12), 1037-1062.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부부공동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민주 (2016).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 최선화, 김상림 (2020). 아버지의 근대적 성역할 태도와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가정* 34(4), 347-362.
- 최승미, 권정혜 (2012). 첫 자녀 출산 전후 부부의 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적응 과정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79-704.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자녀 가치 국제비교: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자료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지희, 김보영 (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 Bahr, S. J., Chappell, C. B., & Leigh, G. K. (1983).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5-80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Dubowitz, H., Black, M. M., Cox, C. E., Kerr, M. A., Litrownik, A. J., Radhakrishna, A., ... & Runyan, D. K. (2001).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functioning at age 6 years; A multisite study. *Child Maltreatment*, 6(4), 300-309.
- Feeney, B. C. (2003). The dependency paradox in close relationships: Accepting dependence promotes in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314-331.
- Feinberg, M. E., Brown, L. D., & Kan, M. L. (2012). A multi-domain model of coparenting in early childhood.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1), 39-57.
- Fiorillo, D., Lavadera, A. L., & Sabatini, F. (2020). Par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role of sharing the care of childre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8(3), 629-659.
- Karney, B. R., & Bradbury, T. N. (2023). Marital satisfaction and adaptive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5(2), 275-291.
- Kouros, C. D., Papp, L. M., Goeke-Morey, M. C., & Cummings, E. M. (2014). Spillover between

- marital quality and parent - child relationship quality: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s moderat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3), 315-325.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Ma, Mi-Jong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 McHale, S. M., & Lindahl, K. M. (2011).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childrearing values in coparenting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3), 429-440.
- McHale, J. P., Rao, N., & Cummings, E. M. (2004). Family relationship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research. *Family Relationship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Research*, 53(3), 295-311.
- Nomaguchi, K. M., & Milkie, M. A. (2003). Costs and rewards of children; The effects of becoming a parent on adult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56-374.
- Puglisi, N., Rattaz, V., Favez, N., & Tissot, H. (2024). Father involve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early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ology*, 12(1), 675.
- Rosenfeld, M., & Roesler, K. (2023). Predictors of marital dissolution and the role of early marital quality. *Family Relations*, 72(1), 48-6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ith, J. A., & Johnson, L. R. (2023). Marital satisfaction and its role in family cohesion and societal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7(4), 245-259.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813-82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 1차원고접수 : 2025. 07. 29.
심사통과접수 : 2025. 08. 28.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co-paren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APIMeM)

Si Ra Hong Yu Young Lee
Graduate School,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pplied the Actor - 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paren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considering both actor and partner effects. Participants were parents resid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whose children attended kindergartens or daycare centers. Data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and responses from 220 dyads were analyzed. The analysis of direct effects revealed that fathers' child value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either their own or their partners' co-parenting perceptions. In contrast, mothers' child values demonstrated significant actor and partner effects on co-parenting.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fathers' values positively influenced their own marital satisfaction (actor effect) but negatively influenced their partners' satisfaction (partner effect). Mothers' value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in this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marital satisfaction, both parents exhibited significant actor and partner effects. The medi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co-parenting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However, for mothers, co-parenting fully mediated both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in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long with i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ld value, marital satisfaction, co-parenting, APIMeM